신화적인 방역대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사랑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을 넘기고있다.

2019년 12월 원인모를 비루스성페염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여 오늘에 이르는 기간 수억의 감염자와 수백만의 사망자를 내며 전 인류를 악몽과도 같은 대재앙의 소용돌이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한 《COVID－19》사태.

비록 총포성은 울리지 않고 자욱히 흐르는 포연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세계적인 보건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치르고있는 준엄한 전쟁임이 분명하다.

인류의 사활을 걸고 몇해째 벌어지는 비루스와의 치렬한 전쟁에서 방역선진국이라고 자처하던 나라들까지 패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지만 사회주의조선에서만은 방역전쟁에서의 련이은 승리만을 이룩해가고있다.

이 놀라운 현실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인간에 대한, 인민에 대한 위대한 어버이, 절세위인의 가장 진실하고 열렬하며 헌신적인 사랑.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신화적인 방역대승을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이야말로 인류사에 영원히 남아 빛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 최고정화이다.

최장의 신기록-2년 3개월

우리 공화국에서 치명률이 높은 악성 비루스의 류입을 2년 3개월동안이나 막아내는 세계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운 것은 오늘도 세인의 수수께끼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그 2년 3개월동안 죽음의 비루스가 전 세계를 휩쓸며 악몽과도 같은 전염병파동만도 몇차례나 일으켰으며 그로하여 수억의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속에 신음해야만 했고 수많은 생명들을 잃는 참사가 매일과 같이 빚어졌다.

허나 어찌하여 이 땅에서만은 단 한명의 비루스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던가.

그것은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발생초기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것을 중차

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이 어린 가장 믿음직한 방역정책의 실시로 인민사수전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매일매일이 사실상 세계보건사의 기적이였던 그 꿈만 같은 날들에 바쳐진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악성전염병발생초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취해주신 선견지명의 특대조치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물리적힘이 격돌하는 전쟁에서 전략전술

을 바로 찾아야 승리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악성전염병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옳바른 방역정책을 확정하는것이 승세를 틀어쥐기 위한 가장 선차적이고도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다.

사실 악성전염병의 발생초기인 2020년 1월초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사태를 세계적인 류행병으로 선언한 3월상순까지의 기간에만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악성전염병에 옳바로 대처하지 못하고있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나서서 전염병상황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두달만에는 점점 더 험악해지는 사태에 돌변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웠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의 정객들의 이러한 오만과 편견, 독단으로 하여 유럽

은 삽시에 걷잡을수 없는 감염증사태에 빠져들었고 이딸리아와 같이 한개 도시가 순식간에 죽음의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름의 방역조치들을 취한다고는 하였지만 갈수록 험악해지는 전염병상황을 저지시킬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다.

주변나라들과 지역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전파되던 초기에 벌써 천리혜안의 예지로 이 비루스의 위험성과 그것이 우리나라에 류입될 경우에 초래될 심각한 후과를 환히 꿰뚫어보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COVID－19》의 전파가 미칠 후과에 대해 랭철하게 분석하시고 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특대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였다.

2020년 1월 공화국에서는 《COVID－19》감염증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것이 선포되였다.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되였으며 각 지휘부들에서는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지점들에서 검사검역사업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며 마스크착용의 의무화, 반입물자들의 검사검역과 소독사업의 강화와 같은 강도높은 방역대책들이 세워지게 되였다.

국경을 포괄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악성비루스가 들어올수 있는 모든 통로들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엄격한 조치의 시행.

이것은 그 어느 나라도 생각조차 못하던것이였다.

사실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봉쇄와 같은 중대결정을 내린다

는것은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것이였다.

더우기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실 강렬한 열망과 의지로 백년대계의 거창한 사업들을 추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완전한 차단봉쇄조치는 너무나 힘든 결단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이께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있다는것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이고 신조였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에 떨쳐나 과감한 투쟁의 격변기를 열어나가던 주체109(2020)년 2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소식을 받아안던 때를 뜨겁게 돌이켜보군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보장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

바로 여기에는 인민의 아픔과 불행을 가셔주고 건강과 생명안전, 행복과 미래를 굳건히 지키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제일가는 사명으로 여기고계시는 절세위인의 한없는 인민사랑이 비껴있었다.

그때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의료전문가들은 우리 공화국에서 취한 선제적이면서

도 엄격한 방역조치를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너무 서뿌르게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더우기 미국의 악랄한 경제제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이 자기스스로 문을 닫아매는것은 자승자박하는것이라고 우려하거나 비웃는 세력들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2020년 3월에 들어와 악성전염병전파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종전기록을 돌파하며 악화되였는데 3월 31일에는 악성비루스감염증이 202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되였으며 감염자수는 85만 6 900여명, 사망자수는 며칠전까지 2만여명이였던것이 4만 2 100여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감염자수가 18만 9 000여명, 사망자수는 3 900명으로 증가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험악해지는 악성전

염병전파사태에 보건선진국이라고 자처하던 나라들에서조차 방역체계가 마비되는 등 전 세계가 심각한 보건위기상황에 빠져들 때에야 그들은 공화국이 취한 방역조치들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선제적이며 적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놓친것때문에 자기스스로가 재난을 불러왔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COVID－19》감염증전파와 피해가 더욱더 확대될수록 인민의 안녕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시는 위민헌신의 로고는 더해만 갔다.

2020년 한해동안에 그이께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지도하신 중요당회의들만도 그 얼마인지 모른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인민사수, 인민보위.

이것은 이 땅의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전적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절세위인의 억척의 의지이고 드팀없는 실천이였다.

보건위기에 대처하여 방역부문의 사업체계를 보다 정연하게 세우기 위하여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사상 처음으로 군사화하여 국가비상방역사령부로 개편해주시였으며 세계적인 전염병사태가 장기화되는데 맞게 전체 인민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보다 더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전국적으로 전염병의 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2020년 7월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더욱 뜨겁게 발현되였다.

개성시에서 조성된 심각한 사태와 관련하여 즉시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책임성과 헌신성을 안고 당중앙의 령도에 충실하고 철저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

결하여 맞다든 방역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고 개성시를 완전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페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이 미리 취해진데 맞게 전염병의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전격적으로 전개되였다.

비상확대회의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비상정황하에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의 안전, 인민의 생명을 굳건히 지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에 대해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뜻밖의 큰물피해까지 겹쳐들어 시련과 난관이 형언할수 없었던 그 나날 자애로운 어버이의 해빛같은 인민사랑은 이 땅우

에 참으로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낳았다.

완전봉쇄라는 뜻밖의 비상정황앞에서 봉쇄지역 인민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이 봉쇄지역 인민들의 집집마다 분에 넘치게 흘러들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성시가 완전히 봉쇄된 그 시각부터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보장하도록 해주신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에서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지원하는 문제를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였다.

개성시인민들이 겪는 불편이자 우리 당의 아픔이고 그들을 돌보아주는것은 어머니당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시면

서 악성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개성시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고 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신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개성시인민들에 대한 걱정뿐이라고, 자신의 이 소박한 성의가 개성시인민들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데 도움이 되면 한시름놓겠다고,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인민들이 어려운 난관을 신심있게 헤쳐나갈것이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어버이!

그이의 하늘같은 은정이 뜨겁게 어린 식량과 부식물, 생활용품과 땔감을 비롯한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들을 받아안을 때마다 개성시인민들은 솟구치는 격정으로 오열을 터뜨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은 정녕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원수님 보내주신 소중한 물자들은 그대로 생명수, 불사약이 되여 우리의 피부

에 와닿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우리의 친어버이이십니다!

개성시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생활속에 난관은 있을지언정 비관이란 있을수 없고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철리를 새겨안으며 방역전의 하루하루를 꿋꿋이 이겨낼수 있었다.

비상방역전의 첫해인 2020년은 전염병 전파위험과 함께 엄청난 자연재해로 하여 정말이지 고난과 시련이 겹겹으로 덧쌓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월부터 시작하여 7월과 8월에 이어 9월까지 련이어 들이닥친 큰물과 태풍으로 인해 전반적지역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자연의 재앙을 당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없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한 류례

없는 피해복구조치를 련이어 취해주시였으며 큰물로 감탕바다를 이룬 땅, 길마저 찾아볼수 없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험한 곳에도 제일먼저 찾아가시여 친어버이의 따뜻한 손길로 인민들을 일으켜주시였다.

천만식솔의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품어안아 시련의 난파도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수재민들이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일하는가 하면 재해지역으로 최정예수도당원사단과 인민군부대들이 급파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고 불과 수십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지역들에는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련속 솟아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천지개벽의 새 전설이 꽃펴났다.

당시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이 암담한 생활난에다 악성전염병

의 전파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이중삼중의 재난을 당해야 했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조치에 의해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철저히 지켜지고 금천군 강북리와 은파군 대청리, 검덕지구를 비롯한 피해지역들에 솟아난 선경마을들마다에서는 고마움에 목이 메여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가 하늘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불같은 헌신과 로고가 있었기에 공화국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악성비루스의 전파가 철저히 차단되고 강력한 방역형세가 유지되였으며 세상이 보란듯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만방에 남김없이 시위할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의 귀전에는 환희와

영광으로 눈부시던 10월의 그밤 세계적인 대재앙과 혹심한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인민의 무병무탈과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오히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하시며 북받쳐오르는 격정에 눈굽을 적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심장의 고백이 쟁쟁히 들려온다.

심금을 틀어잡는 그 진정의 고백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그 어떤 대가와 만족을 모르는 어버이의 불같은 진정의 분출이였다.

10월의 열병광장에서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고 확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기에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에서 절대로 만족을 모르시였다.

2020년말에는 세계적으로 감염력이 매우 강한 변이비루스들이 련이어 발생하여 보건위기상황이 날로 심각해졌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에서는 초긴장상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악성비루스전염병의 류입을 철저히 막아내고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당 제8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는 정치적사변이 일어나 세상사람들을 다시한번 놀래웠다.

류례없는 엄혹한 도전과 난관들이 겹쌓였던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수호해주시였다.

2021년에 들어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오미크론변이비루스와 같은 전염력과 치명률이 높은 새형의 변이비루스들이 련이어 생겨나 병원들마다 환자들이 차고넘치고 사망자들이 급증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악성전염병사태에 대한 공포와 불안, 사회적혼란은 더욱 가중되였다.

2021년 1월말에 세계적으로 감염자수가 1억 257만여명이였던것이 6월말에는 1억 8 217만여명으로 그리고 12월말에는 오미크론변이비루스가 89개 나라와 지역에 류입되였으며 감염자수가 년초보다 배로 증가된 2억 8 484만여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자료를 놓고서도 전염병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알수 있다.

날로 장기화되고 더욱 파국적으로 번져지는 보건위기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정책의 실시와 함께 전민의 자각적일치성, 단결

된 위력을 발휘해나감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방역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공고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들에서 방역강화는 순간도 방심하면 안되는 가장 중핵적인 과업, 국가사업의 제1순위라는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모두가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체110(2021)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 회의를 통해서 비상방역장벽을 든든히 쌓은데 토대하여 통제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 방역에로 이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게 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다시금 지적하시였다.

방역강화를 가장 중핵적인 과업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받들

고 전민이 한순간의 자만이나 방심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비상방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방역진지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나갔다.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죽음의 병마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통곡소리만이 울려나올 때 이 땅에서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내세우고 만전을 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에 의해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만이 날로 더욱 높아갔다.

그 나날에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은 만사람의 심금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비상방역전의 장기화로 하여 인민생활에 적지 않은 애로가 제기되였을 때 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

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신 격동의 잊지 못할 화폭이며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때이지만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시여 온 나라가 감격으로 끓어번졌던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정녕 인민을 위한 고생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고생을 묻어 인민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하시며 그 인민을 위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2년 3개월동안이나 단 한명의 감염자도 없는 세계방역사에 전무할 최장의 신기록을 세울수 있었다.

세계적인 보건동란속에서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낸 2년 3개월.

이 나날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의 무한

한 사랑의 세계가 력력히 어린 불멸의 려정이였으며 역경속에서도 불행을 모르고 웃으며 시련을 헤친 강의한 인민의 긍지와 행복이 실린 나날이였다.

기적의 90여일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건국초유의 준엄한 방역위기를 끌끌내 가셔내고 방역대승을 안아온 최대비상방역전의 90여일간.

생각할수록 세계방역사에 전무후무한 기적중의 기적이 창조된 방역대전의 그 나날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이 어떤것인가를 페부로 느끼게 한 참으로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결연히 나서시여 뜨거운 열과 정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민헌신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사랑의 신화이다.

2022년은 전 세계가 악성비루스의 재앙

속에서 세번째로 맞이한 해였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인류의 생존자체를 엄중히 위협하는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는다는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우기 공화국과 같이 주변나라들과 지역들이 다 가장 심각한 전염병사태에 직면해있고 또 우리 국가의 생존, 우리 인민의 생명을 노리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022년 5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COVID—19》가 동시다발적으로 전파확산되여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나라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하게 되였다.

전파력이 매우 높은 스텔스오미크론변이비루스의 류입이 어떤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지 모를 위기앞에서 사람들 누구나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야말로 건국이래의 대동란이였다.

삽시에 휩쓴 열병이 다름아닌 악성전염병이라는 소식은 온 나라에 불안의 무거운 그늘을 던져주었다.

악성전염병사태로 인해 무리죽음을 당하는 다른 나라들의 참혹한 실상을 TV나 신문지상에서만 보아오던 인민들이여서 죽음의 병마가 침습한 엄혹한 현실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고 누구라 없이 자기자신의 운명, 사랑하는 자식들과 혈육들의 운명을 놓고 가슴을 조이며 위구심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사랑하는 인민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억척불변의 의지를 안으시고 인민수호의 희생적인 결사전, 인민사수의 최전방에 결연코 나서신분은 위대한 어버이 **김정은**원수님이

시였다.

뜻밖의 사태앞에서 일군들마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어찌할바를 몰라하던 그 시각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위대한 어버이의 심장이 과연 무엇으로 박동쳤는가.

후날 이에 대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존재,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존재이였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기에, 목숨을 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부터 비상방역사업을 자신께서 직접 틀어쥐고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것은 자신의 마땅한 직책상의무라고 하시면서 방역대전을 진두지휘하시였다.

주체111(2022)년 5월 12일.

이날에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소식이 일제히 전해졌다.

회의를 직접 소집하시고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며 봉쇄와 박멸을 병행하여 우리 경내에 침습한 《COVID－19》의 전파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근원을 최단기간내에 없애기 위한 적시적이고 구체적인 방역지침들을 밝혀주시면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신심을 굳게 하고 위대한 힘을 배가하여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함으

로써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단결로써 우리들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숭엄한 영상을 우러르며 천만인민은 방역전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게 되였다.

형언할수 없는 고뇌와 눈물겨운 헌신으로 인민들에게 죽음을 이겨내는 불사의 힘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방역대전의 하루하루, 낮과 밤, 일각일초는 말그대로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뜨겁게 아로새겨졌다.

귀중한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련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들을 소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 백, 천, 만가지에 이르

는 대책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며 불철주야 방역전장들을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 취해주신 방역조치 하나하나가 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도록 하시고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페조치를 실시하며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신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최대비상방역체계하에서 나라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페시키는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였다.

강력한 조치의 실행시 초래되는 가늠할수 없는 난문제들과 후과가 두려워 파국

적인 보건위기의 대재앙을 2년나마 겪으면서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하지 못한것이라고 해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민의 생명과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는 추호의 드팀도 없이 견결하시였다.

하여 나라의 경내에 침습한 《COVID—19》의 전파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근원을 최단기간내에 없애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최대비상방역체계가 즉시에 가동되였던것이다.

국가적인 약품보장과 공급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도록 적시적인 대책이 세워짐으로써 악성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마련된것도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조치가 안아온 결실이였다.

악성전염병이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제일 절박하게 나선 문제의 하나는 전염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게 약품을 신속히 공급하는것이였다.

사실 그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적으로 예비의약품을 긴급해제하여 공급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약품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있었다. 특히 국가의 위기관리에서 중추가 되고 최후보루가 되여야 할 수도의 약국들에 의약품이 수요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치료에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 15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으며 그 이후 진행된 중요당회의들에서도 약품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넘어가도록 긴급대책이 세워지고 적대세력들의 전쟁위협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이지만 국가예비의약품들을 긴급해제하여 도시는 물론 북부산간지대, 분계연선지역의 외진 마을들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전진공급하도록 중대조치가 취해졌다. 뿐만아니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고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수천명의 강력한 력량이 즉시에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다,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며 중대위기앞에서 인민을 받드는 충심을 비상한 열도로 더없이 승화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 어떤 투철한 각오를 안고 어떤 희생적인 정신으로 방역전쟁을 진두지휘하시였는가를 우리 인민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방역전의 전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모습에서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첫날 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처음 당하는 대국난앞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일군들에게 방역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승세를 획득하기 위한 명철한 전략전술들을 하나하나 환히 밝혀주

시였다.

그렇듯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까지 직접 나오시여 신심을 주시고 절대로 지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을 다해나가라고 고무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소리없는 울음을 삼키였다고 한다.

그이께서 깊은 밤 악성비루스가 떠도는 수도의 약국들을 찾으시였던 그날의 격정과 충격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사실 정치국 협의회를 마치시고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군들은 한없는 죄책감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이 일을 쓰게 못하여 방역전선에 파공을 낸것만도 머리를 들수 없는 일인데 인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과연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하는것이 일군들모두의 심정이였다.

하지만 인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심장에 꽉 채우시고 낮이나 밤이나 잠 못 이루시는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실 각오를 안고계시는 그이의 걸음을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그날 너무도 뜻밖에 자기들의 약국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종업원들은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했다.

《원수님, 저희들도 병을 앓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도 안타까이 애원하였건만 아무렇지도 않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 가까이로 성큼성큼 다가서실수록 약국 종업원들은 몸둘바를 몰라하며 뒤로 물러섰다.

인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아픔을 두고

그토록 마음을 쓰시며 약국운영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약품공급과 판매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약국의 종업원들과 일군들은 뜨거움에 목이 꽉 메여옴을 금할수 없었다.

신문과 방송으로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약국들로는 수많은 전화들이 폭발적으로 걸려왔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 약국을 돌아보시였다는것이 사실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와 살도 아낌없이 갈라주고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어머니이다.

정녕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초월하는 열과 헌신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 몸소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

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신 사랑의 전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고동치게 하였던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오늘 우리 집에 있던 상비약품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이 약 한지함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치겠으니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우리는 인민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시는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회의참가자들모두는 눈굽을 적시고야말았다.

병석에서 너무도 뜻밖에 원수님의 사랑어린 상비약품을 전달받고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웨치던 황해남도인민들의 모습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뜨거운 혈연의 정을 보여주는 화폭이였다.

《사연깊은 상비약품을 받아안는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신것만 같아 쓰러져있던 온 집안식구들이 기적처럼 일어나 원수님만세를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태탄군농기계작업소의 한 로동자의 이 격정의 토로속에 온 황해남도인민들, 아니 위대한 어버이사랑을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급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 해주시인민들에게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보내주시였을 때 온 농업도가 다시한번 감격의 파도로 설레였다.

이 나라 수천만아들딸들은 최대비상방역전의 나날 한밤중에 긴급조직된 애기젖가루, 암가루공급과 관련한 사랑의 이

야기도 한없는 격정속에 돌이켜본다.

방역전쟁으로 일각일초가 더없이 긴장하게 흐르던 그때 인민사수의 최전방에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조차 너무도 갑자기 들이닥친 상상밖의 어려운 시기여서 안타까와하면서도 누구나 선뜻 바라지 못했던 애기젖가루, 암가루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하여 평양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도들에 애기젖가루, 암가루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긴장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악성전염병을 치료하면서 남모르는 괴로움을 안고 모대기던 애기어머니들이 뜻밖에 집에 앉아서 애기젖가루를 받아안게 되였으니 그 감격과 흥분이 얼마나 컸으랴.

정말이지 하늘도 감복할 그 혈연의 정과

사랑, 끝없는 헌신과 로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2022년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계기로 우리 인민은 간고했던 인민사수전의 그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며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였는가를 너무도 모르고 지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격렬했던 방역전의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과 관련하여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되며 련이어 소집하신 중요당회의만 하여도 10여차나 된다.

더우기 고열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수 없었던 원수님의 그 로고에 대해서 뒤늦게야 알게 되였을 때 우리 인민모두가 가슴미여

져 오열을 쏟고야말았다.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소식이 전해진 그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은 이렇게 눈물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오늘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듣고 우리 마을사람들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고열속에 심히 앓으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수님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까지 하루하루 마음든든히 살아왔는데 그처럼 위중하게 앓으시면서도 인민을 지켜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으시였다니, 그런것도 모르고 원수님께서 쓰셔야 할 약을 우리들이 먹고 병을 털었다니 가슴이 막 터져오는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약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사랑이 담긴 불사약이라

고만 말해왔는데 아니였습니다. 어버이의 희생정신이 어린 불사약을 먹고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평범한 그 녀인의 말에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비껴있다.

정녕 천만인민은 온넋으로, 온몸으로 절감하였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굳건히 지켜주려는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여 죽음의 병마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조금도 두렵지 않으며 방역전에서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닥쳐온 국난은 사상최대의 위기였지만 인민은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온넋으로 새기며 그이 품에 더 깊이 안겨들었다.

남들은 죽음의 병마에 시달리며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 인민은 오로지 고마움과 감격의 눈물만을 흘리였다.

하기에 최대비상방역전의 그 나날 평양에 체류하던 외국의 인사들은 위대한 인민사랑의 전설들을 목격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빛발은 태양과 같이 조선인민을 덥혀준다고, 이런 령도자는 현 세계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진심을 토로했다.

이렇듯 숭고하고 열렬한 인민사랑의 넋과 열로 수천만 생명을 지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죽음의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었던것이다.

《절세위인의 무한대한 인민사랑은 위대한 승리를 안아옵니다.》

천만의 심장마다에서 분출된 이 토로는 방역대전에서의 빛나는 승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오늘도 력력히 말해주고있다.

사랑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무한한 힘을 낳기마련이다.

수천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바쳐진 위대한 어버이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은 그대로 만사람의 가슴마다에 사랑과 정으로 국난을 반드시 이겨나갈 열화의 정신력을 분출시키였다.

그이의 사랑과 정은 온 나라에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도, 있을수도 없는 인간사랑의 고결한 희생정신, 공산주의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게 하고 전민항전, 전민합세의 기세를 더욱 고조시킨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받들어 공화국의 방역, 보건부문의 전사들은 남다른 각오와 의지를 가다듬고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방역전에

서슴없이 온몸을 내대였다.

최고사령관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수도의 약국들에 급파된 군의부문 전투원들도 한목숨바쳐서라도 인민을 지켜낼 결사의 각오를 안고 인민들의 생명수호와 건강보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시내의 약국들과 거리들, 집집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보내주신 우리 군대가 왔다!》고, 이제는 살았다고 만세부르는 인민들의 감격의 웨침이 울려나왔다.

인민군대의 희생정신은 수도시민들을 일으켜세운 불사의 힘이 되였고 공산주의 미덕과 미풍을 전사회적으로 더욱 승화, 분출시킨 기폭제로 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하신 축하연설에

서 비록 목숨을 겨냥한 총탄은 날아다니지 않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비루스를 박멸하는 투쟁에 서슴없이 나서서 인민들을 수호한 동무들모두는 오늘의 화선군의, 전투영웅들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어렵고 힘겨울 때 오가는 인정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것이다.

최대비상방역기간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 더욱 뜨겁게, 강렬하게 발휘된 공산주의적인 미덕, 미풍이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첫 시기에 벌써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의학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어렵고 간고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하시기 위해 몸소 실천적모범으로 우리 인민들을 이끌어주시였다.

자신과 가정에서 리용하셔야 할 상비약품마저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과 인정미는 온 나라에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을 위해 자신들의 진정을 바치였던가.

전체 인민은 당과 정부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비상방역과 관련하여 시달되는 모든 규정과 지시를 성실하게 받아들이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한 응당한 의무, 본분으로 간주하면서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준수하고 무조건 실행하는

훌륭한 기풍을 보여주었다.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으로 치렬했던 방역전의 그 나날에 이 땅에 차넘치는 미덕의 세계는 결코 돈이나 재부로써는 진가를 헤아릴수 없는 우리 사회의 화목과 인간적뉴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한것이였다.

온 나라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지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악성전염병에 의한 유열자들을 모두 완쾌시키고 치명률도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대비할수 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 세계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세계공공분야의 최고의 위험사태로부터 국

가와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우리가 직면했던 가장 중대하고 위협적인 도전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소거해버린것은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지난해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의 뜻깊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하시면서 불굴의 신념과 강의한 인내, 진정한 단결로써 안위존망의 사태에서 자기자신과 모두의 안녕과 평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내고 이번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하루하루가 1년, 10년맞잡이로 느껴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련속이였던 방역전쟁의 나날 자신께서 바치신 온갖 로고

와 헌신은 다 묻어두신채 인민들의 수고에 대하여 제일먼저 떠올리시고 부디 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축원한다고,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라고 끓어오르는 심중을 토로하신 그이를 우러르며 천만인민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진정 인민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은 자식들을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이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다.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는 세계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에 조성되였던 악성전염병사태를 종식시키고 방역안전을 회복하는 보건사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조선의 불가항력의 힘에 세계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세계적인 기록》, 《세계보건계의 전무후무한 기적》…

세계언론들이 떠들었고 여기저기에서 찬탄과 부러움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은 인류가 악성전염병으로 3년째 재난을 당하고있는 때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시켜 100일도 안되는 기간에 전국을 악성비루스가 없는 청결지역으로 전환시킨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력사적승리이라고 격찬하면서 조선에서의 최대비상방역전은 세계가 조선에 대해 다시한번 알게 한 계기였다고 토로하였다.

세상을 놀래우는 신화적인 방역대승을 안아온 더없는 궁지에 앞서 천만의 심장마다에서 뜨겁게 분출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 세상 제일로 인민을 사랑하시며 그 운명과 미래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다.

사랑으로 이긴 최대비상방역전.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있어 우리 인민은 최악의 시련도 끝끝내 이겨내고 보다 큰 승리의 래일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수 있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2022년 12월 27일 국제전염병대처의 날을 맞으며 유엔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악성전염병의 대가는 재난적인것이였다고 하면서 대류행병이 들이닥친이래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고 수억명이 앓아누웠으며 경제가 풍지박산나고 보건체계에 부하가 걸려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기구는 《COVID—19》감염증이 인류가 직면한 마지막 대류행병이 아닐것이라는것, 국제사회가 심각한 교훈을 명심하고 현 보건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다음번 보건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다.

유엔의 경고는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현재 인류는 날로 악화되는 심각한 공공보건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또 다른 위구심에 빠져들고있다. 그것은 오늘의 전염병사태에 못지 않은 도전적인 보건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것으로 예측되고있기때문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해결전망이 날로 암담해지는 보건위기앞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연 혼란과 파동으로 허덕이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최대비상방역전에서 대승을 이룩한 이후 그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번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성과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장벽을 철통같이 견지하고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것으로 여기고 철저히 지켜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높이 전개하여 방역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그 어떤 보건위기속에서도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낼수 있는 방역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아직은 중대보건위기가 가셔지지 않았던 주체111(2022)년 6월상순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면한 악성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타개

하는것과 함께 그 어떤 보건위기속에서도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철저히 지켜낼수 있는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을 구축할데 대한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이후 8월에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돌발적인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방역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교훈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소한 방심과 해이도 허용하지 말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위기대응능력을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방역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인민들을 위해 마음

쓰시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과 더불어 공화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속에서도 인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방역대전이 보다 강도높이 진행되고있다.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사태는 사소한 자만이나 방심도 허용하지 말고 비상방역전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더 강하면서도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변하지 않은 변이비루스들이 세계각지에서 련이어 출현하여 이로 인한 감염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방역경계심을 늦춘탓에 새로운 변이비루스들의 출현으로 인한 폭발적인 감

염자확산을 막아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들에서 《XBB. 1. 5》와 같은 위험한 오미크론변이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 하루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생겨나 커다란 피해를 입고있다.

또한 대다수의 나라들이 방역등급을 낮추고 제한조치들을 해제하는 바람에 돌림감기를 비롯하여 비루스성호흡기질병이 기승을 부려 세계는 《혼합대류행》이라는 새로운 감염파동의 공포에 떨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험성이 높은 원숭이천연두비루스가 수십개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된것을 비롯하여 날로 악화되는 전염병위기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정치적, 경제적혼란을 겪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도 끄떡없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다.

무엇보다도 전인민적인 방역의식과 각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최대의 긴장성을 계속 유지해나가고있다.

방역사업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누구나 안심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사소한 공간과 허점도 허용함이 없이 최대로 각성분발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실현해가고있다.

모든 단위와 지역들에서 방역선전과 교양을 각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이 방역전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소한 해이와 방심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하는것을 비롯하여 전사회적으로 방역분

위기를 보다 고조시켜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여기에 만전을 기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되였다.

전원회의 사상을 구현하여 공화국각지에서는 비상방역사업이 국가사업의 제1순위라는것을 뼈속깊이 새기고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안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기울여지고있다.

사람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자만과 방심, 무경각성을 철저히 극복하며 특히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해 공화국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게 되였던 심각한 교훈을 언제나 자각하면서 주위에서 발견되는 색다른 물건이나 이상징후를 각성있게 대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돌려지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방역정책과 조치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깊이 인식하고 방역위기의식과 공민적인 책임의식을 보다 높여 자각적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인민적인 방역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강도높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주민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검병검진, 사업 및 생산, 생활공간들에 대한 소독과 체온재기를 책임적으로 하며 발열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의 행동질서를 누구나 잘 알고 자각적으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사업도 보다 철저하고 정연하게 진행되고있다.

철통같이 구축된 방역장벽을 유지공고화하는데 계속 주력하여 그 어떤 악성비루스도 다시는 침습할수 없게 하는것은

방역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에서는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을 비롯하여 악성비루스의 류입공간으로 될수 있는 위험지역들에서의 방역상황관리와 함께 다중봉쇄장벽의 방어능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대류행병의 변동특성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보강과 정비를 적시적으로 따라세움으로써 최대의 완벽성을 기하도록 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와 구급의료봉사체계, 먼거리의료봉사체계와 같은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에 토대하여 유열자장악과 전주민검병검진사업이 매일 진행되고 격리 및 치료를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방역형세의 안정을 공고히 하고 감염근원을 철저히 없애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모든 제약, 고려약공장들에

서 호흡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하고 효능높은 약물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는 한편 약국들의 의약품판매정형과 재고량을 지표별로 장악하고 부족되는 약품들을 긴급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방역을 보다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완벽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방역력량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방역사업을 떠메고나갈 골간들을 튼튼히 키워나가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의학대학들과 교육기관들에서는 실력가형의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주력하고있으며 방역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 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보건부문과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그 어떤 보건위기에도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실질적인 성과들이 일어나고있다.

보건부문에서는 계절적영향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속에서 발생할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으며 의학연구원을 비롯하여 과학연구부문에서도 고려약재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약물을 개발하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으면서도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약물들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2022년 11월 평양에서는 방역,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속에 《전국방역, 보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2022》가 《방역토대구축과 의료품의 질개선》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참가단위로 보나 출품건수로 보나 전례없는 큰 규모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교육, 과학연구단위들과 보건부문 생산단위들에서 출품한 지능방역로보트, 자동체온측정손소독기, 소독용플라즈마활성수제조기 등 방역실천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나타내고있는 여러 소독설비와 치료약물들, 의료기구 및 소모품과 검사시약들, 우리 식의 방역체계와 치료방법들이 참관자들의 대단한 호평을 불러일으켰다.

전시회는 튼튼한 과학기술력으로 나라의 방역과 보건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 보건으로 되게 하려는 새로운 각

성과 분발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고려약공장들,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의료용소모품공장, 방역의료품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방역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있어 앞으로 그 어떤 보건위기사태에도 철저히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가 하나하나 착실하게 마련되여가고있다.

이렇듯 절세위인의 인민사랑과 더불어 방역대전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이 철저히 지켜지고 국가부흥과 변혁적발전의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진군이 다그쳐지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기세에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더해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찬 발구름소리와 더불어 주체혁명의 억년청청함을 만천하에 시위한 2023년 새해 첫날의 뜻깊은 기념사진, 행성의 모든 악과 불의의 세력을 쓸어버릴 필승불패의 군력을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의 만고불후의 업적을 온 세상에 과시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과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강력히 촉진하게 될 투쟁지침을 책정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그야말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사회주의조선의 눈부신 새 력사가 창조되고

있다.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의 진모습을 보여주는 기적과 변혁의 실체들을 련이어 떠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천만아들딸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안겨주시기 위해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에 대해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　　　*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이 준엄한 방역대전은 국가정치리념과 사회관리체계, 문명발전수준을 비롯하여 나라의 사회제도와 종합적국력은 물론 그 전도까지도 날날이 투시되는 엄정한 시험대로 되고있다.

최대비상방역전을 통하여 과시된 공화국의 위상은 세인들에게 오늘날 진정한 강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되새겨보게 하고있다.

조선은 가장 강대한 힘과 정신을 가진 불패의 국가, 끝없이 창창한 앞날이 약속되여있는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높이 전개해나가고 있는 공화국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억척으로 자리잡은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있기에 공화국은 세계적인 보건위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다 물리치며 언제나 승리하리라는 굳은 확신이다.

그렇다.

절세위인,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이 있어 난관과 시련은 가증되여도 조선의 존엄과 국위는 더욱 찬연히 빛날것이며 이 땅우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신화적인 방역대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사랑

집 필 림정렬
편 성 김일미
장 정 채대성 교 정 리명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4월 12일
발 행 주체112(2023)년 4월 14일

ㄱ－1589ㄷ